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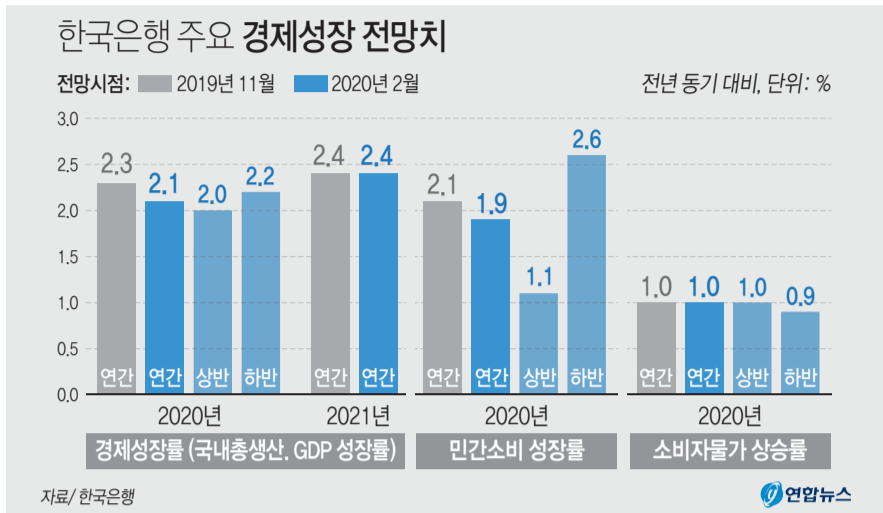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제 만신창이… 1분기 역성장”

한은, 올 성장률 2.3%→2.1% 조정 내림세 속 추가 하향 가능성 대두
이주열 “감염병사태 중 가장 충격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아져”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올해 2분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27일 한은은 ‘2020년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4%를 유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월 2.6%에서 7월 2.5%, 11월 2.3%, 올해 2월 2.1%로 0.5% 내림세를 보였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면서 “올해 GDP 성장률은 2%대 초반 수준에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

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올해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며 “과

거 다른 어떤 감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클 것이고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크게 위축을 받는 게 소비, 그다음에 관광산업,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0%, 내년은 1.3%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하고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지겠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면에서 물가하방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중에는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경제전망(2.1%) 대비 0.2%포

인트 낮춘 1.9%로 전망했다. 상반기 성장률을 1.9%에서 1.1%로 대폭 하향했지만 하반기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해 연간 하향 조정폭을 상쇄했다.

설비투자는 성장률 전망치가 4.9%에서 4.7%로 하향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올해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는 소폭 높아지거나 수출 기여도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예상한 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내수 1.4%포인트, 수출 0.6%포인트, 내수 1.7%포인트, 수출 0.7%포인트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였던 560억달러보다 10억달러 증가한 5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엔 54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가보지 않은 길’ 머뭇대는 한은 충격과 지켜본 후 4월 인하카드 낼 듯

정책여력 위한 금리동결 관측
“코로나19 장기화 등 살핀 후 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리인하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으나 한국은행은 ‘동결’을 선택했다.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 여파를 지켜본 후에 통화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사상 첫 1.00% 시대가 열리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4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으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택했다…실효하한도 고려
한은이 금리동결을 택한 것은 금융안정, 실효하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은 금리 결정에 있어 주요 요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가계빚은 사상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가계빚 증가세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다다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하한이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말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다. 그동안 이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언급해 왔지만 실효하한을 고려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은 1~2차례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면 금리를 꼭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여력을 남겨놓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압박 커질 듯…4월 대세로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는 동결을 결정했지만 금리인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경기애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2월 경제지표는 3월에 발표된다. 결국 한은은 올 1분기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반등 수준까지 지켜본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분기, 빠르면 4월 중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지 더 엄밀히 살펴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금리 조정의 효과와 부작용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OS

필승카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637호 (2019.09.03~2020.09.02)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남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